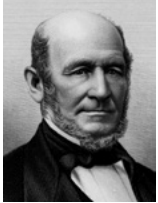


“주님께 인도를 구함”

제일회장단의 히버 시 김볼(1801~1868) 회장이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 봉사하던 시절에 겪었던 일을 이야기한 다음 글을 읽어 보고 이어서 나오는 질문들을 토론한다.



“리버풀에 있는 동안 우리는 평의회를 이루어 서로 논의했고, 복음을 선포하며 그분의 왕국을 세우고 전파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잘 쓰일 수 있는 곳으로 인도받도록 주님께 간구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하는 동안 주님의 영과 하나님의 크나큰 권능이 우리와 함께했다. 우리는 크게 강화되었음을 느꼈으며 살든 죽든 영광을 얻든 비난을 받든 모두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였다. . . .

프레스턴으로 가라는 주님 영의 인도를 느끼며 . . . 우리는 그곳으로 출발했다.”(*Journal of Heber C. Kimball*, ed. R. B. Thompson [1840], 15–16)

- 이 이야기는 “우리가 두려움과 부족함을 느낄지라도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당신의 사업을 수행할 자격을 갖추게 해 주실 것”이라는 원리를 어떻게 보여 주는가?
- 주님의 인도를 구하려는 이 선교사들의 노력을 통해 우리는 또 어떤 원리들을 배우게 되는가?